

## 등록금 심의 위원회 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자	2012년 1월 12일
위원정수 7명	재적위원 7명

- (1) 일 시 : 2011년 1월 17일(화) 14:00  
 (2) 장 소 : 학생지원처장실  
 (3) 참 석

구 분	직 위	성 명	직급 및 직책	서 명
참석자	위원장	유 현	기획실장	유현
	위원	허남윤	학생지원처장	허남윤
	위원	구자윤	학생지원과장	구자윤
	위원	김진혁	총학생회장	김진혁
	위원	홍양석	총학생회 부회장	홍양석
	위원	이윤하	총학생회 총무부장	이윤하
	위원	김성수	이화다이아몬드 총무이사	김성수

### (4) 안건 및 심의 결과

가. 안 건 : 2012학년도 등록금 심의

나. 심의결과 : 2011학년도 대비 입학금은 동결하며 등록금은 2% 인하 한다.

천원단위이하 절사 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금을 책정한다.

(실질 인하 2.2%)

구 분	정 규	위 탁	전공심화
입학금	730,000원	730,000원	730,000원
공학/자연/예체능	3,590,000원	3,590,000원	3,510,000원
인문사회 I	3,440,000원	3,440,000원	3,230,000원
인문사회 II	3,070,000원	3,070,000원	3,030,000원

유현 허남윤 김진혁 홍양석

## (5) 회의내용

위원장 : 2012학년도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학에서 준비한 자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과목표를 가지고 교육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예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우수한 교육을 위해 2012학년도 신규 교원을 12명을 채용 할 계획이 있으며, 12명을 채용 하더라도 수도권 평균에 아직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 상승률이 3.3%입니다. 네 번째 공무원 보수 인상이 3.5% 확정되어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는 우리대학에서도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노후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에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 해 볼때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있었으나 사회적 분위기 및 교육과학기술부 장학금 정책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동결을 학교의 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총학생회의 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혁 : 총학생회에서 준비한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페이지를 보시면 각 학과 학회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지시설 추가 요청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숙사입니다. 인근대학을 조사해 보았는데 대부분의 대학이 300명에서 500명규모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인근대학과 비교해보았을 때 학생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대학에이 기숙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처음부터 500명규모의 기숙사 건축이 힘들다면 300명규모의 기숙사라도 건축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대학 운동장 문제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많이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보수가 반드시 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타 복지시설관련 사항입니다. 여학생 휴게실 및 여자화장실내 위생봉투 설치와 캠퍼스 안내도 보수, 금연표지판, 우체통, 각 교육관 층별 안내판, 스터디룸을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총학생회 요구안을 준비 했습니다.

위원장 : 등록금과 관련해서 별도로 안이 있나요?

김진혁 : 총학생회에서는 각 학과 학회장들과 회의를 거쳐 등록금 7%인하를 의결하였습니다.

위원장 : 등록금 7%인하와 함께 요구사항도 관철되어야 하나요?

김진혁 : 솔직하게 요구사항이 전부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대학 등록금 인하분위기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 해보았을 때 최소한 5%의 등록금 인하는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총학생회 요청사항중 기숙사와 운동장은 이 회의에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 대학에서 참고하여 결정되어 져야 할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타 다른 요구사항은 시행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혁

홍양석

허남윤 : 기숙사와 운동장 문제는 대학 및 학생지원처에서도 검토하고있는 사항이며 기타 학생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대학과 상의하여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록금과 관련된 사항은 7% ~ 5%인하를 요구하였는데 학교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 분위기와 국가정책문제도 있으니 좀 더 검토를 해서 적정 인하폭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윤 : 총학생회에서 조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인근대학에서 등록금을 인하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대학이 인근대학과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대학은 재단 전입금도 없는 상황으로 등록금 자원만을 가지고만 대학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록금 인하를 한다면 여러분에게 돌아갈 교육의 질 또한 저하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변대학과 다른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대학은 별도의 학생회비를 받지 않습니다. 축제, 체육대회등 각종 학생회 주관 행사의 재원이 교비에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록금 동결안을 대학안으로 준비했지만 국가정책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적정한 등록금 인하 폭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 솔직하게 말해서 등록금을 인하하자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하된 만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과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하를 많이 한 대학은 재단의 전입금이 보전을 되는 것입니다. 서울 시립대를 보면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는데 그만큼 서울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적인 인하보다는 적정선의 인하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자윤 : 제제를 받은 대학들이 2012년도 등록금을 많이 인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학에 가보면 학생복지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대학은 기존에 총학생회 재정지원 부분도 있고 복지시설도 타 대학에 비해 많이 확충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여기서 적정선의 인하 폭을 확정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총학생회 요구사항 중 첫 번째것은 실현 가능한 것이라 생각되고 기숙사는 대학에서도 현재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운동장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요구사항으로 올라온 내용으로 작년에 요청이 있어 개보수 비용에 관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용투자 대비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진행된다고 말하기는 힘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요구 안들은 충분히 실현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되고 일부 요구안은 학생지원처에서 2012학년도에 진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터디룸경우는 이용자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도서관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타 대학에서도 도서관에서 스터디룸을 설치 운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도서관에 스터디룸을 설치계획이 있었으나 서고 이전에 문제가 있어 설치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 그 부분은 관계 부서와 상의하여 2012학년도 예산편성시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3/5 홍양석

홍양석 : 총학생회 자료에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32대 총학생회장 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2011학년도 등록금 협상 할 때 정문 버스 승강장 개선사업이 시행되도록 협의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 그 부분은 정문 옆 수위실이 건축물로 등록이 되어 있어 임의 개보수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총학생회의 요구대로 버스 승강장을 개보수하기 위해서는 정문의 대대 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버스승강 장 및 수위실 설계와 인허가 부분의 절차가 우선 진행되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 다. 총학생회의 양해를 바랍니다. 외부위원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 나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국가적인 등록금 정책과 대학재정의 운영상황도 고려해 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총학생회의견도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장 오늘 절충이 어렵다면 좀 더 검토하고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구자윤 : 학교 안을 제시해 줘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 등록금 동결로 하는 것은 총학생회의 어려움이 있나요?

김진혁 : 사회적 분위기와 타 대학의 등록금 인하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대학만 동결한다면 학생들의 이해를 구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적정선에서 인하가 이루어져야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남윤 : 총학생회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7% ~ 5%의 인하는 재정상의 무리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대학의 인하폭을 제시하면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인가요?

학생위원들 : 예.

구자윤 : 그럼 2%인하를 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사실 4년제대학의 등록금이 상당히 높아 문제가 발생되어 진 것으로 우리대학처럼 실험실습이 많은 대학은 등록금이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일단 학교 안은 동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절충안으로 2%인하를 학교 안으로 제 시합니다. 이정도 선에서 절충이 가능 한가요?

구자윤 :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시가 된 것이니 총학생회에서 회의를 진행해서 회의 결과를 통보해 주면 등록금 인하폭을 결정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4/5  
유영환, 최남윤, 김진혁, 허남윤, 홍양석

인하가 되는지 않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부회장이 말한 것처럼 교비로 총학생회에 지원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적정선의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그러면 등록금 2%인하 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학생위원들 :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 그러면 회의록 전체 서명은 받도록 하고 간서명은 3인으로 하겠습니다.

구자윤 : 학생대표, 학생지원처, 기획실에서 간 서명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그럼 오늘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는 2012학년도 등록금 2% 인하(입학금 동결)와 천원단위 절사에 의결 한 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 예. 끝.

2012년 1월 17일

## 오산대학 등록금심의 위원회

위원장 허남연 감사장 5/5 홍양식